

[1958-11-25, 에버렛 스완슨이 성경학교 원장님에게 보내는 편지]

1958년 11월 25일

친애하는 성경학교 원장님 귀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쁜 계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복된 날을 지켜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은혜를 다시 베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기관은 한국의 집 없는 고아, 전쟁 과부,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통해 많은 성경학교가 이 불행한 이들에게 미국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성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헌금 모두(또는 그 일부)를 지정 기탁하여 저희 13개 기독교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1,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8명의 청년이 현재 성경연구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들께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한 프로젝트로 이 기회를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려도 될까요? 보내주신 모든 기금은 이 소중한 어린이들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필요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른 제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교에서는 이 사역을 한국 어린이 한 명을 1년 동안 후원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연 96달러 또는 월 8달러).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는 큰 도전이 되었고, 그 결과 1년 간의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학교들은 어린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달받고 있으며, 확대한 어린이 사진들을 게시판과 교실 등에 걸어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1년에 몇 차례 중고 헌 옷이나 새 옷을 가져와 후원어린이에게 보내줄 때, 또 다른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임이 실제로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경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든 저는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동봉된 노란색 봉투에는 후원 신청서가 들어 있으며, 기부금을 보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장의 사진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존경하는 우리 총회 소속 세계구호위원회(World Relief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위원회는 대부분의 보육원에 재봉틀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린이들을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원장님과 직원들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리며,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12월 10일 이후로 교회, 성경학교, 여전도회 및 기타 단체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35mm 컬러 슬라이드 두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촬영하고,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선정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세트의 제목은 "한국의 보육원, 전쟁 과부, 한센병 환자를 통한 전도(Evangelism through Orphanages, Widow's and Leper's Work in Korea)"이며, 두 번째 세트의 제목은 "오늘날 한국에서의 전도(Evangelism in Korea Today)"입니다. 첫 번째 129의 슬라이드는 주로 보육원 사역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72개의 슬라이드는 현지 전도사들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각 세트에는 타이핑된 설명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경우 대여료는 없습니다. 다만, 헌금을 해 주시거나 우편 요금을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가능한 날짜를 2~3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